

# 朝鮮時代 毛織物에 관한 考察

東國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朴 舜 智

前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學科

教授 李 春 桂

## 目 次

I. 緒 論

II. 毛織物의 種類

III. 工 匠

IV. 毛織物의 原料

V. 結 論

ABSTRACT

## I. 緒 論

古代 우리나라 毛織物은 舊石器時代부터 사용되어온 皮物을 原料로 하여 新石器時代에 毛織物이 製造되어 衣服과 生活用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古朝鮮과 夫餘를 거쳐 三國時代 그리고 統一新羅時代와 渤海를 통하여 罽·氈氍·氈氍·氈·褐·毳 등 모든 종류의 毛織物이 衣服과 生活品目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文獻記錄과 遺物을 통하여 알 수 있기도 하다. 高麗時代는 金屬絲로 線織成한 화려한 毛織物인 罽錦이 발달하였음을 각종 文獻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朝鮮時代의 毛織物에 관한 연구로 각종 動物性 纖維로 製織된 毛織物과 毛織物을 원료로 하는 服飾類에 관하여 古文獻과 기타의 報告資料 그리고 遺物資料를 수집 정리하여 사용되어진 毛織物의 種類와 製織 및 製作過程 그리고 그 用途를 고찰하며, 遺物의 연구를 통하여 韓國

의 毛織物의 系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발굴된 遺物은 전자현미경촬영에 의한 織物組織과 纖維種類 등을 分別하고자 한다.

毛織物에는 動物性 纖維를 紡績이나 製織過程을 거치지 않고 수분·열·압력에 의해 製造되는 毛氈과 動物性 纖維로 紡績하여 織機를 사용하여 織組하는 毛織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은 朝鮮時代의 毛織物의 種類, 毛織物의 製作 및 製造를 맡은 工匠, 毛織物의 原料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毛織物에 관한 先行研究로는 李如星의 「朝鮮服飾考」<sup>1)</sup>를 들 수 있는데 毛織物로서 罽와 毛氈이 上古時代 존재하였음을 기술하였다. 柳喜卿은 「한국복식사연구」<sup>2)</sup>에서 韓國의 上代社會의 服飾에서부터 개화기의 服飾에 이르기까지 衣料로 毛織物 罽·氈氍·氈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

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2)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다. 閔吉子<sup>3)</sup>는 “朝鮮時代의 皮, 毛物에 대한 研究”에서 朝鮮時代に 사용된 皮物과 毛織物에 관한 내용을 문헌별로 발췌·정리하였고 “韓國傳統纖維製品의 發掘 I”에서 朝鮮에서 수출된 毛製品인 日本의 朝鮮綴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閔吉子和 沈蓮玉의 “韓國傳統 Carpet(Rug)의 祖型考察”에서 韓國의 日本 輸出生製品인 朝鮮綴의 製造樣式을 고찰하고 있다. 尹良老는 “古代 毛織物에 關한 研究”<sup>4)</sup>에서 기원전부터 9세기까지의 亞細亞의 毛織物과 이 지역간의 東西交流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東亞細亞에 韓國의 毛織物을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 II. 毛織物의 種類

朝鮮時代에는 이전 時代부터 내려온 毛織物 選好 現狀이 繼承되어 많은 毛織物이 製織 사용되었다. 營造司에서 氈·罽가 供給되었으며 繕工監에서도 氈·罽가 供給되었던 기록<sup>5)</sup>이 있어 氈과 罽가 朝鮮時代 宮中에서 사용된 物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經國大典』<sup>6)</sup>에 의하면 1447년에 堂下

官 이하 婚姻에 罽와 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일반 貴族의 婚姻에 毛織物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近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婚姻에 사용된 가마지붕에 호랑이가 직입된 毛布를 製造하여 덮었는데 그 遺品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한다.<sup>7)</sup>

牛毛氈·狸氈·羊毛氈·白羊毛氈은 그 명칭을 통하여 氈의 材料로 너구리털과 羊毛과 白羊毛가 사용되어 氈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8)</sup> 『尙方定例』<sup>9)</sup>에는 특별히 羊毛氈編이 있는데 羊毛로 만든 紅氈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六典條例』<sup>10)</sup>에 北關紅花羊毛의 기록이 있어 紅氈은 紅花로 染色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羊毛氈과 罽가 每年 봄과 계절에 따른 進上이 있었음이 『六典條例』<sup>11)</sup>에 기록되어 罽와 氈은 工典의 工曹에서 製造하였음을 보여준다. 羊毛氈 25浮를 每年 製造하여 宮中에서 사용하였는데<sup>12)</sup> 『尙方定例』<sup>13)</sup>에 따르면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世孫宮·嬪宮에 年例進上으로 五幅氈衫이 있었다. 毛座子·毛椅子·毛踏掌에 羊毛氈이 사용되었으며 尙衣院에서 조달하였다.<sup>14)</sup> 大殿·大王大妃殿·王大妃殿

3) 閔吉子, “朝鮮時代 皮, 毛物에 대한 研究”, 『教育論叢』 第11輯, 國民大學校 教育研究所, 1991.

閔吉子, “韓國傳統纖維製品의 發掘 I - 毛製品(Carpet, Rug)을 중심으로 -”, 『服飾』 第18號, 韓國服飾學會, 1992.

閔吉子·沈蓮玉, “韓國傳統 Carpet(Rug)의 祖型考察”, 『第13回 國際服飾學術會議』, 中國籌備委員會, 1994.

4) 尹良老, “古代 毛織物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誠信女子大學校, 1994.

5) 『六典條例』 卷10, 工典 工曹.

6) 『經國大典』 卷5, 刑典.

7) 『민속대백과사전』 권8, p.16.

8) 『度支準折』·『度支志』·『六典條例』 工典·『尙方定例』 羊毛氈編.

9) 『尙方定例』, 羊毛氈編.

10) 『六典條例』 卷10, 工典 尙衣院.

「北關紅花羊毛 七百五十三兩五錢」

11) 『六典條例』 卷10, 工典 工曹.

「革皮氈罽春等進上」

12) 『六典條例』 卷10, 工典 尙衣院.

「羊毛氈二十五浮每年推造入用」

13) 『尙方定例』 天篇.

「年禮進排…內座更…五幅 氈衫 二浮…」

14) 『六典條例』 卷10, 工典 尙衣院.

「毛座子毛椅子毛踏掌…戶曹取用其餘羊毛氈等」

·中宮殿·世孫宮·嬪宮에 進上이 4년에 한번씩 있었다.<sup>15)</sup>

『尙方定例』·『六典條例』·『萬機要覽』·『度支志』<sup>16)</sup>에 나타난 織物의 종류 중에 氈·白氈·紅氈·羊毛氈·藍氈·黑氈 등이 있으며 紅花染色 羊毛와 紫染色 羊毛 등의 기록이 있어 朝鮮時代에 各色으로 染色한 色氈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本院元供에 羊毛가 포함되어 있으며 進獻用으로 羊毛氈이 사용되었다.

大殿冕服 一品에 羊毛毛精이 사용되었다. 紅氈·藍氈의 사용이 있었다. 紅氈은 靛靛皮를 사용한 體筒箇에 사용되었고 藍注五細氈衫에 藍氈이 사용되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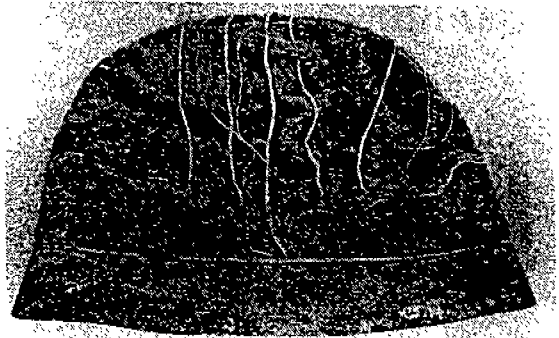
白羊毛精具 各 1部가 大殿·世子宮에 麗日·冬至에 進上되었으며 兩殿에 各 2兩씩 宮에 各 1錢씩 進上되었다. 그리고 黑氈·白羊毛氈 그리고 白絨氈이 度支部에서 수급되어졌다.<sup>18)</sup>

羊毛氈編에 表羊毛氈이 있는데 產室排設用으로 羊毛氈이 기록되어 羊毛氈이 宮中の 出産에 소용되었음을 보여준다. 妃나 嬪에게 산후가 있으면 태의원의 제조는 말은 바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산전에 들어가서 우선 그 달에 길한 방향에 靛·백고석·양털담요·두꺼운 기름종이·백마가죽·가는 돛자리 등을 순서로 겹겹이 놓아 產座를 마련한다. 백마가죽 밑에는 아들을 낳기 바란다는 뜻으로 다람쥐의 가죽과 물삼(麻)으로 꼰 실을 넣고 말고뻬를 벽에 걸어 둔다. 이 고뻬는 해산할 때에 그것을 잡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실리적 이용물이지만 또 아들을 상징하기도 한다.<sup>19)</sup>

이와같이 朝鮮時代에는 毛織物이 여러 用途로 多樣하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毛氈이 많이 사용되었다.

毛織物에 관한 朝鮮時代 遺物로는 國立中央博

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毛의 축음물로 만든 帽子를 들 수 있다(圖 1). 그 帽子는 遺物番號 5994號로 淡褐色 축음물로 두루주머니를 펴 놓은 모양으로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전면에 黃色 비단끈이 모자정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帽子의 높이는 23.5cm이며 가장 길이가 긴 아래 폭이 27cm이다. 앞부분이 한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황색 비단끈을 꼬아서 길게 늘여 모자정상을 넘어 뒤로 넘어가게 하여 뒤판으로 앞판을 덮는 속으로 넣어 고정시킨 것이다. 뒤판은 두겹을 같은 형태로 0.5cm의 차이를 두고 제도하여 붙여 그 차이는 선으로 문양을 내고 있다. 또한 앞판에는 앞쪽으로 반원형 형태의 제도를 하여 최고높이 5cm에서 앞 중심부를 향하여 3개의 반원형 형태로 크기를 줄어들게 하여 모양을 내었는데 그 뒤판과 같은 형태로 두겹으로 하되 그 두판 사이의 차이가 0.5cm 정도의 차이를 두어 제도하여 겹쳐서 帽子를 만들므로 그 자체가 문양을 이루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반원형 위를 따라 겹친선에서 속으로 1cm 들어와서 황색 비단끈 2줄을 둘러 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맨아래단을 3cm로 하여 앞뒤로 돌아가며 들렀는데 겹치는 선 바로 위에도 黃色 絹織物 끈으로 2줄로 하여 두르고 있다. 朝鮮時代 毛織物에 있어서 귀중한 遺物이다.



〈圖 1〉朝鮮의 淡褐色羊毛氈冠帽(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

15) 『尙方定例』天篇·『六典條例』卷10·『度支志』卷9.

16) 『尙方定例』別例·『六典條例』卷10·『萬機要覽』財用編·『度支志』卷9.

17) 『尙方定例』天篇.

18) 『六典條例』, 戶典, 戶曹前例房, 四殿宮元供上.

19) 梁在淵 外3人, 『韓國風俗誌』, 乙酉文化社, 1988, p.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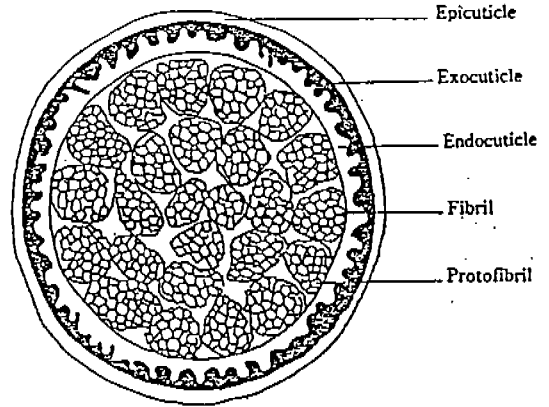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본 品目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纖維의 側面과 斷面을 <圖 2·3>에 게재하였다. <圖 4>에 제시한 일반적인 羊毛纖維의 斷面에 비교해 볼 때 위의 사진이 같은 羊毛纖維라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측면은 양모섬유의 특징인 스케일이 분포되어 단면사진 역시 양모섬유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圖 2> 冠帽의 纖維側面  
(현미경상에서×750)



<圖 3> 冠帽의 纖維斷面  
(현미경상에서×3500)



<圖 4> 一般羊毛纖維의 斷面  
(羊毛講座 p.65)

『格致叢書』<sup>20)</sup>에 「羊의 털로 만든것을 氈帽라 한다」 하여 朝鮮時代 氈帽의 주된 材料가 羊毛임을 밝히고 있다. 『新增東國輿志備考』<sup>21)</sup>에 의하면 中國의 三升布와 양털모자를 파는 靑布廬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中國의 毛織物도 朝鮮에 들어와 일반에 通用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으며 外氈笠廬과 內氈笠廬이 있어 氈으로 만든 모자를 파는 상점이 內外로 분리되어 있어 朝鮮時代に 氈으로 만든 笠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朝鮮女俗考』<sup>22)</sup>에 의하면 「國俗에 通用되는 물건 중에 氈裘가 있는데 이것은 綿사용 이전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綿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갓옷에 毛氈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朝鮮時代에는 이 외에도 많은 氈이 製造되어 여러 用途로 사용되었으며 外國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朝鮮時代末 王이 신은 黑靴<sup>23)</sup>에 毛 축음물이 사용되어 遺物로 전하는데 걸은 검은 黑緞으로 되었고 白色의 氈이 내장되어 있다. 氈笠은 戰笠 또는 병거지라고도 하였는데 1472년에 毛衣·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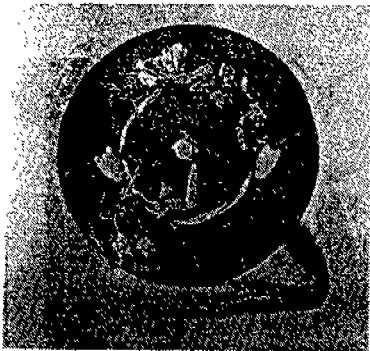
20) 『芝峯類說』卷19, 服用部 冠帽.

21) 『新增東國輿志備考』卷2, 漢城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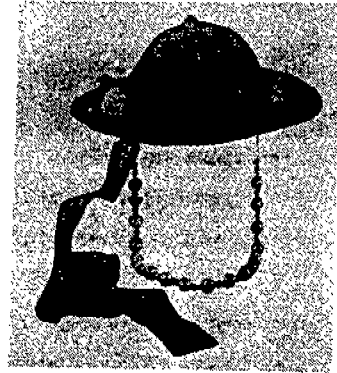
22) 李能和, 『朝鮮女俗考』, 民俗苑, 1984, 第4章.

23) 金英淑, 『朝鮮朝末期王室服飾』,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7, p.189.

笠·氈帽 등을 변방의 군사들에게 보낸 기록<sup>24)</sup>이 있으며 『增補文獻備考』<sup>25)</sup>에 의하면 1750년 戰笠에 갈기털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氈笠은 毛로 만드는데 간혹 갈기와 꼬리(尾)를 대신하였다. 氈笠은 부드럽고 두껍기 때문에 탄환과 살촉이 뚫지 못한다 하여 그 氈笠의 사용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氈笠은 朝鮮時代 武官이 着用한 것으로 1841년에는 舊例대로 毛氈笠을 着用하게 하였으며<sup>26)</sup> 1864년에는 文臣들도 竹氈笠을 毛氈笠으로 바꾸게 하고 있어<sup>27)</sup> 朝鮮時代에 文武百官을 무론하고 氈笠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治谷三官記』<sup>28)</sup>에 의하면 우리나라 西北人이 毛氈笠을 많이 착용하는데 이는 胡俗이라 하였다. 毛氈笠이라 함은 常制인 氈笠의 上面에 毛를 깔아 덮어서 위광을 더한 고급품이라 한다. 그 遺物이 각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材料를 알 수 있는 遺物을 例로 들었다. <圖 5>는 소털과 돼지털로 된 병거지로 높이 9cm 너비 26cm이다.<sup>29)</sup> <圖 6>도 또한 紅氈笠으로 소털과 돼지털로 되어 있으며 너비가 27cm이다.<sup>30)</sup> 이에서 볼 때 朝鮮時代 末期 氈笠은 보통 牛毛와 豚毛로 대다수 만들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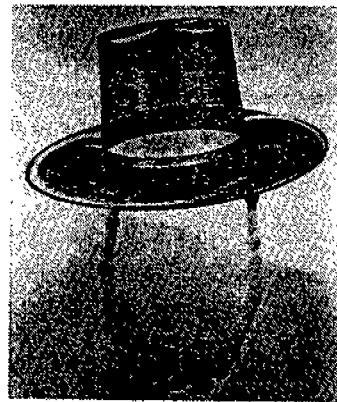


<圖 5> 朝鮮時代의 毛氈笠 (유길준과 개화의 꿈 p.81)



<圖 6> 朝鮮時代의 紅氈笠  
(유길준과 개화의 꿈 p.93)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소털과 돼지털 뿐만 아니라 말총이라 불리는 말꼬리털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갓 종류일 것이다. 갓은 세계에 由來가 없는 정밀한 細工品인데 이 갓은 양태와 말 꼬리털로 만든 총모자로 이루어진다. 하나를 만들려면 무려 51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니 그 정교함을 알 수 있다<sup>31)</sup>(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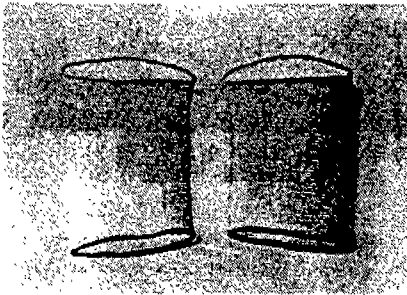


<圖 7> 갓 (文化財大觀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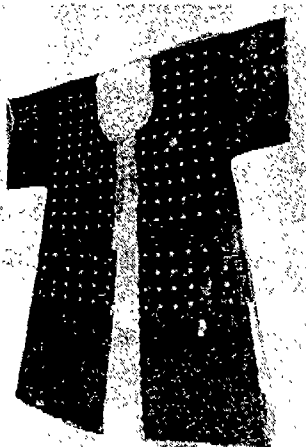
24) 『增補文獻備考』卷122, 兵考14, 成宗 39年.  
 25) 『增補文獻備考』卷112, 兵考 4, 英祖 26年.  
 26) 『憲宗實錄』, 7年 3月 己亥.  
 27) 『增補文獻備考』卷79, 禮考 26, 憲宗 7年.  
 28) 高光林, 『韓國의 冠服』, 知成社, 1990, p.494 再引用.  
 29) 上掲書, p.81.  
 30) 上掲書, p.93.  
 31) 최성자, 『韓國의 美-선색형』, 지식산업사, p.82.

그리고 여름용 토시에 말총이 사용되었다(圖 8).

朝鮮時代 遺物 중 毛織物이 사용된 것은 甲冑가 남아 전하고 있다. 대부분이 붉은색의 毛織物을 사용한 화려한 甲冑인데 陸軍博物館에 1점 · 高麗大學校에 1점 · 國立慶州博物館에 1점 · 溫陽民俗博物館에 1점 · 서울大學校博物館에 1점 · 창덕궁에 1점이 소장되었고 부산 충렬사에 紅色과 靑色의 甲冑가 3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충렬사에 소장된 靑色の 頭釘갑옷(圖 9)는 유일하다. 이 갑옷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1592년 壬辰亂때 釜山鎭 僉使가 착용한 갑옷이다. '흑의 장군'으로 불려진 釜山鎭 僉使는 검은 색을 선호하여 특별히 제작하여 착용하였다는데 현재 보존되어 있는 甲冑의 유물이 홍색인 것을 볼 때 색다른 유물이다.



〈圖 8〉 말총토시  
(유길준과 개화의 꿈 p.29)



〈圖 9〉 毛織物 頭釘갑옷  
(忠烈祠 所藏品)

같이 전시된 투구는 홍색으로 보통 甲冑는 갑옷과 투구가 1點으로 갑옷과 투구의 목가리개는 같은 材料를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홍색투구는 본래의 것이 아니고 혹시 청색의 투구가 유실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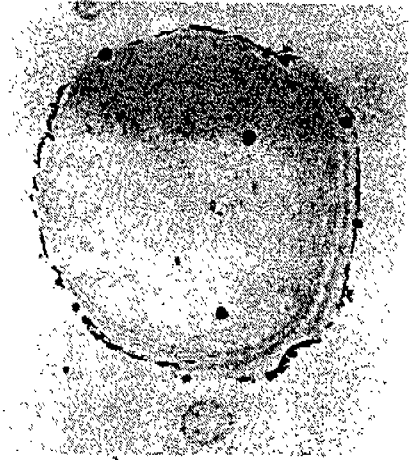
이 심청색 頭釘갑옷에 사용된 섬유를 분별하기 위하여 현미경 촬영을 하였다. 織物組織의 精粗가 1cm당 20×20이다. 〈圖 10〉에서 광학현미경 촬영으로 그 조직을 볼 수 있는데 거친 평직으로 제직된 위에 용처럼 섬유를 심은듯이 보이는데 직물 앞뒤가 같은 형태로 제직되어 있어 앞뒤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무덩굴을 연상시키는 부분은 원래의 형태에 가깝고 製織形態가 보이는 부분은 위의 첨가 섬유가 마모된 것이다. 〈圖 11〉은 纖維側面이며 〈圖 12〉는 纖維斷面인데 羊毛纖維의 特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충렬사의 나머지 紅色의 毛織物 頭釘갑옷도 같은 종류로 보이며 같은 製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된 頭釘갑옷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圖 13·14·15). 그 외에 모든 甲冑를 조사한 것은 아니나 朝鮮時代에 제작된 甲冑에 사용된 毛織物은 같은 組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圖 10〉 갑옷의 組織  
(현미경상에서×40)



〈圖 11〉 갑옷의 羊毛纖維側面(현미경상에서×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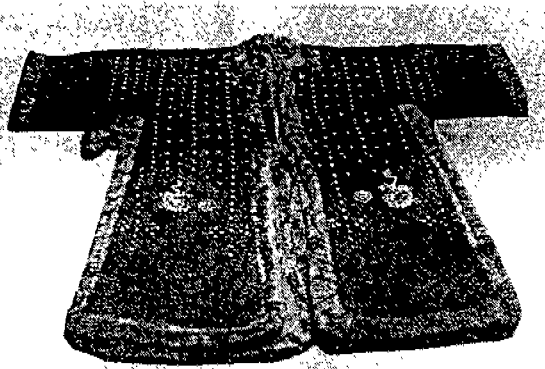
〈圖 12〉 갑옷의 羊毛纖維斷面(현미경상에서×3500)



〈圖 13〉 紅色毛織物 頭釘갑옷 (忠烈祠 所藏品)



〈圖 14〉 紅色毛織物 頭釘갑옷 (忠烈祠 所藏品)



〈圖 15〉 紅色毛織物 頭釘갑옷 (國立民俗博物館 所藏品)

金庭堅의 저서로 편찬연대는 18~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인 『才物譜』에 朝鮮時代의 毛織物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才物譜는 一名 『萬物譜』이다. 萬物의 옛 이름을 別稱·漢名·俗名 등을 모아 分類하고 간간히 한글로 풀이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歷代·文物制度·地理 등도 기록한 책이다.

『才物譜』<sup>32)</sup>에 의하면 褐은 毛布라 하였고 罽은 그音が 黼毛布라 기록되었다. 또한 三升은 褐類라 하였으며 三板布도 三升이라고 하였다. 毛靑布는 靑승이라 하였으며 狸·氈은 氈에서 심세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褐과 三升은 時代에 따라 麻織物과 綿織物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度支志』·『度支定例』<sup>35)</sup>에 당시에 사용되고 流『東國與志備考』<sup>33)</sup>에 漢城府의 市場에 관한 기록 중 毛織物을 판매했던 靑布廳이 있어 中國의 三升布와 양털모자를 판다고 기록하고 있고 『度支志』<sup>34)</sup>에 靑布廳에서 販賣하는 毛織物 중 紅氈·白氈·黑氈과 白羊毛精과 함께 各色三升의 價格이 每桶錢 七兩八錢으로 기록되어 있고 『度支準折』通되었던 各色三升이 기록되어져 있다.

『韓國誌』<sup>36)</sup>에 의하면 韓國의 사냥군은 그들이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 는 낙타털로 짠 帽子를 쓰고 발에는 짐승의 가죽

조각으로 이어 만든 신발을 신었다 하여 낙타털로 짠 毛織物이 朝鮮時代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白羊毛가 儀禮에 사용되었는데<sup>37)</sup> 白羊毛精이 大殿冕服의 一品으로 大殿의 秋夕進上·王妃嘉禮時·大殿法服·王子宮의 嘉禮時 法服으로 大君嘉禮時 衣服에 사용되었다.<sup>38)</sup> 白羊毛精具가 大殿·世子宮에 慶日·冬至에 進上되어<sup>39)</sup> 朝鮮時代에 白羊毛가 宮中에서 王의 冕服 및 嘉禮時 등에 사용된 귀한 物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年次에 따라 늘 進上된 物品이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에 毛羅翼善冠이 사용되었는데 大殿에 1部가 進上되었고 世子宮에 端午에 進上되었다.<sup>40)</sup> 朝鮮時代 織物의 명칭 중에 毛羅가 있는데 平天冠의 毛羅 및 遠遊冠의 毛羅를 尙衣院에서 豫備하였고 尙衣院에 織造色이 있어 毛羅를 製織하였다.<sup>41)</sup>

위의 기록을 모아 <表 1>에 朝鮮時代의 毛織物을 정리하였다.

<表 1> 朝鮮時代의 毛織物

毛織物種類			出 典
罽	罽	罽	大典條例·經國大典·才物譜
氈	氈	氈·白氈·藍氈·靑氈·紅氈·黑氈·彩氈·狸氈·牛毛氈·羊毛氈·白羊毛精·白戎氈·各色毛氈	度支準折·度支志·六典條例·尙方定例·萬機要覽·朝鮮女俗考·朝鮮王朝實錄·增補文獻備考
褐	褐		度支準折·度支志·萬機要覽·東國與志備考·才物譜
毯	毯	毯·彩毯	經國大典

(연구자 작성)

32) 『才物譜』布帛.

『褐毛布 罽靑黼毛布 三升褐類삼승 三板布三升 潤布出南方 氈子러자 狸·氈氈之織者 織羊皮羊毛織成 毛靑布 靑삼승 都布都靑荅高昌國有草窠如蘭 中絲爲細信名曰疊布 蛋布南蛋賦布 斑布반포 棋子布全 印花布화포』

33) 『東國與志備考』卷2, 漢城府.

34) 『度支志』卷10, 貢獻部.

35) 『度支準折』, 目次 1·『度支志』卷9, 貢獻部·『度支定例』, 年例燕賀單子.

36)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463.

37) 『六典條例』卷10, 工典 工曹.

38) 『尙方定例』人編, 嘉禮.

39) 『六典條例』卷10, 工典 工曹.

40) 『六典條例』, 戶典·戶典前例房·四殿宮元供上.

41) 『六典條例』卷10, 工典 尙衣院.



### Ⅲ. 工 匠

朝鮮時代에는 家內手工業 외에 각 官에 所屬되어 物品을 만드는 것을 業으로 하는 工匠制 手工業이 있었으며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經國大典』<sup>42)</sup>의 기록에 의하면 工匠은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나누어진다.

京工匠이란 中央의 각 官술에 所屬된 각종 工匠을 말하고 外工匠은 地方各官술에 所屬된 工匠을 말한다. 京工匠이 가장 專業의인 手工業者인데 반하여 外工匠은 대개 農業을 兼業하는 자들이 다만 장적에 수록되어서 일정한 기한을 官役に 從事하였다.<sup>43)</sup>

이 중에 毛織物과 직접 관련되었을 工匠은 『經國大典』·『大典會通』·『六典條例』에 기록된 毛衣匠·氈匠·毛冠匠·冠匠·網巾匠·帽子匠과 『大典續錄』에 기록된 毛羅匠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毛織物을 製造하기 위한 製絲 및 각종 染色에 관련되었을 工匠은 金絲를 만드는 絲金匠·실을 製造하는 鍊絲匠·合練絲를 만드는 合絲匠·그리고 染色에 관련되었을 靑染匠·紅染匠·草染匠 등이 있었고 이러한 工匠들이 毛織物을 만드는데 직접 간접으로 關係를 맺었을 것이다. 또한 毛織物로 된 衣服을 만드는 곳으로 針線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朝鮮前期 서울과 地方의 市場에 관한 기록은 『東國輿志備考』<sup>44)</sup>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漢城府에의 市場에 관한 기록 중 織物業에 관한 市場으로선 綿布·綿紬·紵布·布衣 綿子麁이 있었으며 이 중에 毛織物을 다루었던 靑布麁이 있었는데 이에서 中國의 三升布와 양털모자를 판다고 기

록하고 있어 中國의 毛織物도 朝鮮에 들어와 일반에 通用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으며 外氈笠麁과 內氈笠麁이 있어 氈으로 만든 모자를 파는 상점이 內外로 분리되어 있어 朝鮮時代に 氈으로 만든 笠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멜漂流記』<sup>45)</sup>에 의하면 朝鮮이 中國과 마찬가지로 綿과 毛織物 그리고 苧布가 풍부하며 日本에서 산출되는 것과 그 색상이 같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古來로부터의 毛織物에 대한 選好 風土를 볼 때 당연한 것으로 朝鮮時代に 까지 이전의 毛織物에 대한 傳統이 내려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Ⅳ. 毛織物의 原料

毛織物에 유용한 원료를 제공하는 羊은 朝鮮時代に 京畿道の 未島와 全羅道에 속한 濟州에서 많이 사양되었으며<sup>46)</sup> 『新增東國輿志乘覽』<sup>47)</sup>에 의하면 「都城에 隣接한 漢城府에서 羊을 기르는 牧場이 있었으며 지금은 羊 50마리만 기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朝鮮時代 후반까지 羊 사육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家畜의 사육을 맡은 典生署에서는 돼지·양·소·염소 등을 貢物로 進獻하였다.<sup>48)</sup> 大殿冕服에 所用되는 氈毛에 山猪毛가 있었으며 彩輿에도 山猪毛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毛織物의 材料로 사용되었을 각종 毛의 종류로 朝鮮時代의 문헌에 기록된 것은 毛·馬毛·障毛·羔毛·廣毛·連廣毛·象毛·眞紅象毛·造紅象毛·山猪毛·家猪毛·細毛·牛毛·羊毛·白羊毛 등이 있다. 羔毛는 여남·양호·관동·윤정에서 산출되었으며 猪毛 중에 山猪毛는 관동에서 산출되었고 家猪

42)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

43) 姜萬吉, “朝鮮王朝前期의 工匠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61, p.47.

44) 『東國輿志備考』卷2, 漢城府.

45) 金昌洙(譯), 『하멜漂流記』, 乙酉文化社, 1988, p.240.

46) 『大東地志』卷3·12.

47) 『新增東國輿志乘覽』卷3, 漢城府.

48) 『度支志』卷10, 貢獻部.

「典生署猪羊牛羔等貢物」

毛는 송도에서 산출되었다. 廣毛·連廣毛·眞紅象毛·造紅象毛는 度支部에서 수급되어졌으며 細毛와 牛毛는 進上物로 進上되었고 障毛는 六曹에서 의해 諸司에 供給되었다. 羊毛는 尙方院 規定에 나와 있어 尙方院에서 毛織物 製織時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白羊毛는 進上物로 貿易되기도 하였다.

羊毛 97斤 14兩 5錢이 慶尙道 監營에서 2년 걸러 上送되었고 10斤 5兩이 全羅道 監營에서 1년 걸러 上送되었다. 所管貢物로서 羊毛는 178斤1兩5錢이었다. 羊毛는 尙衣院 金銀色에서 關장하였다.

中國과의 貿易에 象毛·白羊毛가 사용되었다. 戶典 戶曹에 수급되는 毛·毛氈으로 嶺南·兩湖·關東·輪定에서 羔毛가, 關東에서 山猪毛가, 松都에서 家猪毛가 濟府에서 各色毛氈이 있었다. 所管貢物에 障毛 3等은 6월·10월·12월에 各 200頭를 貢物로 納付하였다. 所管貢物 牛毛氈緞은 正月에 200乳를 貢物로 納付하였다.<sup>49)</sup>

朝鮮時代에는 『世宗實錄地理志』<sup>50)</sup>에 의하면 毛

織物의 材料로 사용될 수 있는 毛 즉 털이 생산되어 進上되었는데 그 산출은 돼지털이 忠淸道·慶尙道·全羅道·黃海道·江原道에서 생산되었으며, 黃毛는 忠淸道·慶尙道·全羅道·黃海道·平安道·咸鏡道에서, 熊毛 즉 곰의 털은 忠淸道·江原道에서, 牛毛는 慶尙道·全羅道·咸鏡道에서, 馬毛는 平安道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細毛가 忠淸道·慶尙道·咸鏡道에서 산출되었다.

또 각종의 짐승의 꼬리가 朝鮮時代 各 地域에서 산출되어 裝飾用으로 사용되었는데 표범꼬리가 忠淸道와 全羅道에서, 호랑이꼬리가 忠淸道에서 산출되었다. 여우꼬리가 慶尙道·全羅道·江原道에서, 돼지꼬리가 江原道에서 생산되었다. 雜色의 깃털도 忠淸道·慶尙道·黃海道에서 산출되었다.

毛織物의 材料로 쓰였던 毛의 종류를 깃털(羽)과 꼬리(尾) 종류를 모아 <表 2>에 整理하였으며 毛織物의 原料를 생산하였던 家畜을 사육하는 牧場은 <表 3>에 整理하였다.

<表 2> 朝鮮時代의 毛·羽·尾

品名		地域								
		京畿道	忠淸道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吉道	
毛	猪毛	돼지털	○	○	○	○	○			
	黃毛	황색털	○	○	○	○		○	○	
	馬毛	말털						○		
	熊毛	곰털		○			○			
	細毛	세모		○	○				○	
	羽	牛毛	소털			○	○			○
		기타	毛·毛羅·障毛·羔毛·廣毛·連廣毛·象毛·眞紅象毛·造紅象毛·山猪毛·家猪毛·羊毛·白羊毛							
羽毛		잡색깃털		○	○		○			
尾	豹尾	표범꼬리		○		○				
	虎尾	호랑이꼬리		○						
	狐尾	여우꼬리			○	○		○		
	猪尾	돼지꼬리					○			

(연구자 작성)

49) 『六典條例』 卷10, 工典 尙衣院.

50) 『世宗實錄地理志』 卷148-155.

〈表 3〉 朝鮮의 牧場

區域	牧場數	牧場名(牧養品種)
京畿道	13	未島
忠清道	3	
慶尙道	9	石浦(馬)·甘勿島(羔)
全羅道	濟州 外 15	濟州(牛·馬·羊羔·猪)·獐島(馬)·蜘蛛島(牛)·莞島(馬)
江原道	1	
黃海道	12	
咸鏡道	9	
平安道	1	鐵山(馬)

(연구자 작성)

## V. 結 論

우리나라는 東洋의 遊牧民族의 文化와 西域의 文化가 모여지는 地域이 되어 독자적인 毛織物의 歷史가 이루어져 왔다. 韓國의 毛織物은 罽·氈氍·氈氍·氈·罽錦·褐·氈 등이 수천년간 製織되어 사용되었고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으로 전승되어 毛織物도 韓國의 傳統 織物이라 할 수 있다.

朝鮮時代에도 毛織物은 여전히 製織되고 사용되어졌다. 朝鮮時代에 氈이 進上品 등의 品目으로 많이 製織되어 사용되었다. 그 遺物로 羊毛 絨용 물로 만든 帽子와 각종 氈帽·氈笠 그리고 毛 絨용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黑靴가 있다. 또한 羊毛 織物을 材料로 하는 많은 甲冑가 遺物로 전하는데 甲冑는 毛織物이 많이 사용된 品目이다. 이

외에 말총으로 만든 갓·토시 등의 遺物이 있다. 朝鮮時代 毛織物의 종류로 罽·氈·氈·褐이 있었다.

## ABSTRACT

A STUDY ON WOOLEN FABRICS  
IN CHOSEN DYNASTY

Woolen fabrics were manufactured in Korea since the early prehistoric period, and were manufactured and used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and Koryo through the Chosen era. These materials were developed in to woolen fabrics through a tradition of thousand years. In Korea the Orient Culture of nomadic tribes and Mesopotamia Culture of stock-farming come together and developed these original woolen fabrics culture.

During the Chosen period woolen goods were frequently manufactured and used. Those remains consist of various hats and shoes made up of felt. And the remains which of a kind of woolen fabrics were made from the wool materials.

There were various stock farms and supplies a woolen craftsman needed the wool materials. And there were especial woolen goods shops as Choung Po Joun.